



문상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③

선원총림의 행자(行者) 교육

출가했다면 스스로 높은 척 말라

‘행자(行者)’는 스님이 되기 위하여 불문에 들어온 사람으로, 아직 사미계(沙彌戒, 10계)를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승려 지방생으로서 지금은 비록 예비 사미승이지만, 때가 되면 사미가 되고 비구가 되고, 훗날에는 이들 가운데서 총림을 이끌어 가는 고승이 출현한다. 따라서 행자들에 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당송 때 선원총림에서는 어떻게 행자들을 교육시켰을까? 행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자료로는 종색선사가 편찬한 <선원정규> 9권 ‘훈동행(訓童行, 행자를 훈도함)’ 편과, <칙수백장정규> ‘주지’ 장에 있는 ‘훈동행’ 편, 그리고 역시 <칙수정규>의 ‘위행자보설(爲行者普說, 행자들을 위한 설법)’이 있는데 매우 자세한 편이다.

<선원정규> ‘훈동행’ 편에는 행자를 받아들일 때에 다음에 준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동행(童行, 행자)이 출가하고자 선원에 들어오면 담당 스님은 자제해 그 근원을 물어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면 받아들이되, 만약 그 의도가 의식(衣食)을 도모한 것이거나 부역(賦役)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건에 연루돼 도망한 자이거나, 부모의 승낙이 없는 자는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원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곳이지, 사회의 낙오자나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송시대에는 행자 가운데서도 20세 이상은 ‘행자’, 19세 이하는 ‘동행(童行)’이라고 불렀다. 즉 ‘나이 어린 행자’, ‘소년 행자’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남자는 19세 이하, 여자는 14세 이하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동진(童進) 출가자가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동행=행자’라고 인식하게 됐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20세 이전에 출가했다. 좀 늦을 경우에는 25세였는데, 그 이후는 ‘늦카이(늦게 머리를 깎음)’라고 불렀다.

당송 시대에는 동행으로서 출가해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저촉되면 출가할 수가 없었다. 이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으로서, (1)남자는 19세 이하, 여자는 14세 이하 (2)몸에 문신(文身)이 있는 자 (3)형벌을 받아서 몸에 낙인이 찍혀 있는 자 (4)죄를 짓고 도망 중인 자 (5)조부모나 부모의 승락서가 없는 자 (6)부모의 승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성년(成年) 남자가 없는 자 (7)문중에 성년 남자가 없는 자 등이다.

동행으로서 출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서에 이름, 나이, 본



해인사 행자가 사시마지를 울리며 법당으로 가고 있다.

관, 거주지 등을 써서 해당 사원에 제출한다. 그 서식을 ‘투원장식(投院狀式, 승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록 상투적이지만 “생사대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공문(空門, 佛門)을 흠모하였음, 부모의 유훈을 얻어 본원에 들어와 동행이 되자 함(부모나 조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출가하여 동행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씀. 바라건대 당두화상(주지)께서는 자비로서 용납하시이다. 삼가 장(狀)함” 이렇게 쓴 다음 년, 월, 일을 써서 제출한다. 그러면 해당 사찰의 주지는 서류상 이상이 없고, 출가하고자 하는 뜻이 확실하다면 날인해 지사(知事)에게 보낸다. 이것으로 서 정식 승낙은 끝난 것이다.

새로 온 동행(행자)은 먼저 고사(庫司, 감원)로 가서 감원이나 고사(庫司)스님에게 오체투지의 삼배를 한다. 그런 다음 짐을 챙겨가지고 행자들의 숙소인 동행당(東行堂)으로 가서, 책임자인 당주(堂主)에게 신고하면 당주는 정식으로 그를 행자실에 입방시키고 자리를 배정해 준다. 이어 당주는 행자의 우두머리인 참두행자(參頭行者) 등 선배 행자들에게 친한 행자를 인사시킨다. 선배 행자들은 인사를 받을 뿐 답례는 하지 않는다.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자는 나이 불문하고 신장 행자는 맨 하위 자리에 앉는다. 행자의 준수사항과 마음자세에 대해

<선원정규> ‘훈동행’ 편에는 크게 입신(立身), 배중(陪衆), 작무(作務)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입신은 행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행동거지에 관한 것이고, 배중은 대중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고, 작무는 율령에 관한 사항이다.

‘입신’ 편에서는 “행자는 5계를 지켜야 한다. 아침과 점심 두 기 외에 오후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과자, 떡, 미음 등 일체 먹지 못함). 총림에서 시키는 심부름 외에는 문밖을 나가서는 안 되고, 참선과 문도(問道, 진리를 배움), 경학(經學)을 익히는데 게으름을 피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행자는 흰색 신발을 신어야 하며, 의복은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한다. 다닐 때에는 두 손을 모아야 하고, 길을 때는 팔을 흔들지 말 것이며, 남의 팔을 잡고 함께 걸어서도 안 된다. 어디서든 스님을 만나면 한쪽으로 길을 피한 다음 합장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것은 “행자는 숙인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서는 안 되며, 부모를 만나더라도 다만 공손하게 읊만 하라”는 것이다.

행자는 심부름 외에는 외출 금지
부모 만나도 절 대신 읊만 가능

‘배중’ 편에서는 “이미 출가해 정당한 대중 속에 들어왔다면, 항상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함을 생각할지언정 아만으로 스스로 높은 척 하지 말라. 대자(大者, 나이 많은 사람)는 형으로 여기고 소자(小者)는 아우로 여겨라.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만일 다투는 자가 있으면 잘 화합해 자심(慈心)으로 대할지언정 악한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만약 행자끼리 서로 업신여기고 시비를 부채질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다(既已出家,參陪清衆,常念柔和善順,不得我慢貢高... 如此出家,全無利益.)”

이 대목은 고려시대 보조국사(1158~1210)가 지은 <조선(계조심학인문)>에도 나오는데, <조선>은 보조국사가 <선원정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송광사 청규로 만든 것이다.

또 “남의 재물이나 의복, 침구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당중(堂中)에서는 잠방이를 입지 말라. 행자당 벽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지 말라. 다방(茶湯, 차)에는 모두 일제히 나아가 차를 따르라. 욕실에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큰소리로 말하거나

웃지 말라. 새벽 기상 종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일어나라. 누워서 몽개지 말라.”

‘작무(율령)’ 편에서는 “보청판을 치면 모두 빨리 나아가야 한다. 율령 중에는 고성으로 떠들지 말라. 작무를 마치고 나서 참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용한 곳에서 참선을 하고, 경을 보는 자는 책상에서 공부할 것이며, 만참(저녁 예불) 뒤에는 이곳저곳에서 끼리끼리 모여 이야기하지 말라” 등 작무편에서는 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매우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옮긴 것이다.

또 <칙수백장정규>에는 주지가 특별히 행자들을 위해 설립한 ‘위행자보설(爲行者普說)’ 편이 있다. 보설(普說)이란 대중적인 설법으로서 처음 보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한 것은 송대의 선승인 진정국문(1025~1102 임제종 황룡파)이다. 특히 간화선의 가장인 대혜 선사(1089~1163)는 많은 보설을 남겼다. 송대에는 행자들을 위한 설법이 없었으나 원대(元代)에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다.

보설이 있을 때는 참두행자(參頭行者, 고참행자)가 행자당 앞에 있는 나무 판(板)을 쳐서 행자들을 방장실로 집합시킨다. 그런 다음 방장실의 시자에게 고하면 시자는 방장화상을 모시고 나온다. 참두행자가 도열해 있는 행자들을 데리고 문안 인사를 한 다음, 오체투지의 9배를 한다. 이어 참두가 “저희들은 오래부터 화상의 가르침을 바라고 있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자비(慈悲, 방장)께서는 깨달음의 인연을 열어 보여 주사이다”라고 말한다.

행자들을 위한 보설에서 주지가 어떤 내용을 설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아마 입산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은 주지가 담당하고 예의범절 등은 각 요사의 수장(首長)인 6두수와 6지사, 행자당(동행당, 행자료)의 당주(堂主)가 담당한다. 그리고 위계질서와 기강 등은 행자 가운데 우두머리인 참두행자가 담당한다. 물론 수십 명이나 되는 행자들을 관리, 통솔하는 것도 참두행자이다. 부참두(副참두)는 참두행자를 도와 행자들을 통솔한다. 행자도 급수와 위계질서가 있는데,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위다.

행자는 방장실(주지)과 승당, 수좌, 서기 등 6두수 그리고 감원 등 6지사가 거처하는 요사(寮舍, 당우)에 각각 배치돼 심부름 등을 담당한다. 주지실의 행자를 ‘방장행자’라 하고, 유나실의 행자를 당사(堂司)행자, 지객실의 행자를 객주(客

頭)행자, 욕실의 행자를 욕두행자, 불전(대웅전)의 행자를 직전(直殿)행자라고 한다. 공두(供頭)행자는 대중들이 공양할 때 승당이나 종료에 들어가서 공양과 국·반찬 등을 배급한다. 이것을 ‘행익(行益)’이라고 하며, 대중들이 점심 공양 후 종료(衆寮, 대중방)에서 차를 마실 때도 행자들이 따른다.

재미있는 것은 대중들이 승당이나 종료에서 공양할 때 큰 소리로 반찬이나 탕·국 등 음식의 이름을 고지(告知)하는 행자가 있는데, 그를 ‘갈식행자(囑食行者)’라고 한다. 특히 새로운 음식일 경우 대중들이 궁금해 하므로 간단하게나마 일일이 고지(告知)한다.

행자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예의와 법식, 염불 등을 익힌 다음 관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출가허가증인 도첩과 각종 세급 면제증인 명정유(免丁由)를 발급받는다. 이것이 있어야 부역, 병역 등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일종의 특혜인 셈인데, 이 때문에 출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시 해당 사찰로 돌아와서 스승 앞에서 득도식(수계식)을 거행하고 거기서 사미가 받는 10계를 받는다. 머리는

행자의 정신교육은 주지가 담당
해능, 행자 신분으로 깨달음 얻어

계를 받기 하루 전에 삭발하는데, 정수리에 약간만 남겨 두었다가 당일 수계식 날에 마저 깎는다.

중국 선종사에서 행자의 신분으로 깨달음을 얻어 일약 제6대 조사의 위치에 오른 선승이 노행자(盧行者) 곧 육조해능(638~713, 廬山)이다. 그는 행자로서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를 찧고 있다가,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라는 것이 없고)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맑은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번뇌도 없는데) 허처아진에(何處惹塵埃,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는가)”라는 오도송으로 하늘같은 대선배인 대동선수를 제치고 스승 5조 홍인오로부터 법을 받아 6대 조사가 됐다. 아마 행자의 신분으로 서 법을 받은 것은 노행자 한 사람일 것이다.



문상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팍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뿔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중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변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책신청 : 054)637-9810